

과외선생이 처음인, 서툰 당신을 위한 현실적인 매뉴얼&팁

다시말해.
과외선생 경험이 없는,
일단 한 명이라도 더 잡는 것이 목표인
당신을 위한
현실적인 매뉴얼&팁

필자 프로필

- 반오십 남성.
- 경희대 재학.
- 누적과외생 20명.
- 시범과외 후 100% 성사.
- 군대에서 본부 행정병 복무하며 온갖 예의범절 체화.

목차

0. 마음가짐

1. 과외 구하는 법, 수업일수&회비 결정법

2. 파트별 매뉴얼&팁

1) 첫인상

2) 시범수업

3) 정규수업

4) 예의범절

3. Q&A

4. 마치며...

예의범절

- 학생집 들어오고 나갈 때 밝게 부드럽게 큰소리로 인사해라.
- 신발 막 벗고 들어오지말고, 구석에 가지런히 놓고 들어와라.
- 하품이 나온다면 최대한 참되, 나온다면 두손으로 입막고 해라.
- 학생, 학부모 앞에서의 용모 정리는 뒤돌아서서 해라.
- 넣어주신 간식은 성의를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손대고, 나갈 때 꼭 잘 먹었다고 감사인사해라.
- 다음 달 회비는 재촉하지 말고, 계속 안들어오면 다음 회비 첫 수업 전날 학부모님께 문자드려라.
- 학생 앞에서 회비, 돈얘기, 돈자랑 하지마라.
- 가글스프레이 정도는 챙기고 다녀라.
- 입냄새 날 만한 거리면 적당히 입가리고 설명해라.
- 정말 급한 연락 아니고서야 수업 중에 휴대폰 보지말고, 쉬는시간에 봐라.
- 학생집 근처에 화장실(카페, PC방, 공용화장실)을 개척해서 미리 해결해라.
-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락할 일 있으면 밤 10시 30분 전에 해라.
- 본인의 과실은 일 커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라.

3. Q&A

오르비에 ‘대학생 과외매뉴얼’ 검색 후
필자(발로탱이)에게 쪽지로 구매인증 후 질문.

4. 마치며...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정답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음. 허나
이제 막 과외를 해보려는 분들에게는 대략적이고 현실적인
길잡이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필자의 경험
외에 여러 선배님들과 유명 과외선생님들께 보고들은 크고
작은 팁들을 녹여낸 것임.

과외는 어디까지나 책임감 높은 고수익 ‘아르바이트’임.
대학공부와 같은 자신의 주업무가 있으면, 그게 우선이
돼야함. 고수익이다보니 얼마 더 벌어보겠다고 주객이 전도
되어, 정작 본인 주업무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그럼 당장에 버는 몇 푼에 비해 장래에 더 큰 손해가 날 수
있음. 조절과 감당이 가능한 멋진 과외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람. 선생님 화이팅!